

續 董

地域文化・地域人情・地域情報

螢 嶺

35호

1986年 3月

特輯① 도민의 숙원・國立博物館建立

道内遺蹟 전시공간 부족 / 金 三 龍

博物館 二十三年間 餘滴 / 全 榮 來

道内品 87%가 他地에 보관 / 文 致 相

뿌리를 되찾는 국립全州박물관 / 李 鍾 哲

特輯② 蔡萬植의 文學과 生涯

李 炳 勲 / 高 憲 / 洪 石 影

李 甫 永 / 宋 河 春 / 윤 영 근

詩 崔 圭 哲 / 崔 圭 煥 / 吳 鎮 坤

論 崔 公 燁 / 李 玟 守 / 韓 相 孝

* 名士의 廣場 / 朴 基 南

* 全北禮讚論 / 崔 相 哲

全北女流文學會 特選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
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이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장 1절〉

편 집 후 기

◇...그동안 공공건물 2층에 자리잡았던 전
주문화원이 하루 종일 드나 드는데 불편하지
않는 건물로 이사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사랑방으로 개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다 가다 마음 편하게 들를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전
주문화원의 오랜 숙원이 올해에는 꼭 이뤄지도록 제현의 성원과 지도를
기대한다.

◇...또 한가지 반가운 일은 문치상편집위원이 문화원의 육성과 노령
의 발전을 위해 실무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문화원과 노령발간은 김광호원장과 장명수교수등 몇몇사람의 헌신적
인 봉사로 오늘의 저력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문치상편집위
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만군을 만난듯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송〉

◇...새해들어 노령에서는 서너가지의 고정난을 신선했다. 우리고장의
원로들을 만나 옛을 그리고 오늘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에서 「노령에
서 만남시다」. 이래 저래 좁은 지역사회에서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간추린 「이창」. 그리고 세상사 하 답답한 심정을 노래한 「판
소리 세평」등... 보다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으리라 믿는다. 〈文〉

蘆

嶺

第35號

1986年 3月

1986年 2月 25日 印刷 / 1986年 3月 1日 發行

《非 賣 品》

發行人 : 金 張 光明 鎬洙
編輯人 : 張 明 洙
(「蘆嶺」編輯委員會)

印刷人 : 咸 清
文公部 登錄番號 : 바-962號 登錄日字 : 1981年 8月 10日

發行所 : 社團 全州 文化 院
法人
全州市 慶園洞 1街 104~5 ☎ ⑥ 7500

印刷所 : 鮮明印刷社 ☎ ②0030·②2878

■ 本誌는 韓國圖書雜誌 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 實踐要綱을 준수한다.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地域文化
地域人情
地域情報

蘆

嶺

제35호 (1986年 3月) 目 次

- 8 卷頭隨想／화폐의 전당張明洙
- 10 86 아시안게임 준비에 同參을金光鎬

特輯①／도민의 숙원・國立博物館建立

- 13 道內 遺蹟 전시공간 부족金三龍
- 18 博物館 二十三年間 餘滴全榮來
- 23 道內品 87%가 他地에 보관文致相
- 27 뿌리를 되찾는 국립 全州박물관李鍾哲

特輯②／채만식의 문학과 생애

- 32 韓國文壇의 紀念碑的 존재李炳勳
- 38 풍자와 낭만의 鄉土人高 憲
- 42 孤高한 作家精神洪石影
- 46 人間鄉愁에의 藝術李甫永
- 51 非理에서 眞理를 追求宋河春
- 55 文學的 意志와 價値觀을 정립윤영근

- 32 * 李鎬培칼럼／있어야 할 博物館李鎬培
- 90 * 全北禮談論／全北과 故 徐相喆박사崔相哲

— 蘆嶺에서 만납시다 —

全州 멋쟁이 老紳士 李文基翁.....	59
----------------------	----

時 論	62	大私習傳授館을 國樂의 學習場化	崔圭哲
	66	全北發展・이렇게 祈願한다.....	崔圭煥
	71	自動車 1백年과 30年.....	吳鎭坤
	75	大學社會의 大學新聞 역할	崔公燁
	81	靑少年 잠재력 개발 우선.....	李玟守
	85	전북교육의 理念的 지표	韓相孝

* 主題있는 散文 *

98	좋은 글귀 풀이 / 王 霸	柳豐淵
99	우리말 우리글 / 옥수수와 강냉이	崔昌烈

94	* 名士의 廣場 / 全州로 오는 길	朴基準
----	---------------------------	-----

100	* 醫境 / 糖尿病의 예방	金然中
-----	----------------------	-----

□ 連 載 □	96	판소리 世評① / 孝子타령	李奉燮
	102	裏窓① / 自中之亂이 빛은 엉뚱한 피해자들	蘇溶鎬
	104	全北映畵 裏面史② / 흥행 이야기	卓 光
	108	全北人物列傳③ / 부통령 咸台永	宋榮相

全北 女流文學會 特選.....	112
------------------	-----

全州文化院 소식.....	131
---------------	-----

편집후기.....	132
-----------	-----

옥수수

「옥수수」는 흔히 「강냉이」라고도 한다. 이 두 이름이 생긴 근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원산지는 어디일까? 나아가서 그 원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진 말이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 분포상태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경위

는 어떤 경로를 밟았을까?
옥수수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때 중국 땅 명나라를 거쳐 처음 수입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16C 초 육로의 실크로드를 따라, 혹은 해로로 포르투갈 항해선에 의해 인도에서 들여간 것이라고 한다.

원산지 남미를 문명국으로 발돋움하게 했던 주곡 옥수수는 서인도 제도로 건너가 주곡이 되고, 다시 콜롬부스에 의해 스페인을 거쳐 유럽 전역에 퍼지고, 포르투갈인에 의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퍼졌다.

옥수수는 남미의 마야·앙카의 인디언 원주민들이 B.C 3000

년경부터 주식으로 삼아 이미 재배했으며 그 원주민들이 부르던 이름은 「Mahiz」였다고 한다. 이 이름은 스페인을 비롯하여 독일, 불란서, 멕시코에 두루 「마이즈」(Maiz)라고 통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옥수수의 학명인 「Zea Mays」도 이 「마이즈」에 기인하며 「좋은 생활 양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옥수수와 강냉이

崔 昌 烈

〈全北大 교수〉

한다. 미대륙 발견 후 새 이주민들이 농사지은 이 옥수수를 처음 수확할 때 기념제를 지낸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玉蜀黍」라고 하는 중국식 이름을 그대로 기록한 데서 「옥수수」라는 이름이 싹트게 된 것이다. 「玉」은 알맹이가 구슬같이 보얹게 빛난다는 뜻으

로 쓴 것이라. 「蜀黍」의 중국 발음은 「쑤쑤」로서 수수의 원래 이름이다. 중국 이름에는 이밖에 「玉米」, 蕃米, 包米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는 옥수수가 쌀을 대항할만한 식량이라는 뜻을 살려 「米」자를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도 국토 전역에 걸쳐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지만, 비교적 토양이 비옥한 남부 평야지대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량과 국민의 쌀 선호의 취향에 따라 국민 주식의 양곡으로 군림하지 못하고 기호식품 정도에 머물러 있고 사료에도 쓰이며, 비교적 토박한 토양을 가진 산간지대가 많은 38선 이북 지역에서 양식을 위한 곡물로 재배되고 있을 뿐이다.

「강냉이」라는 말은 「남쪽 먼곳」을 뜻하는 중국 「江南」에서 온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 나라에서 붙은 이름이다. 함경도의 「옥쉬이」、강원도의 「옥시기」、충청·경상도의 「옥숙구」라는 방언은 「옥수수 식량」이라는 뜻의 「玉食」에서 연유된 것이 아닐까 한다.